찬불가, 혼자 집에서 즐겁게 연습해요

日 전통 찬불가 '고에이카(御詠歌)' 앱 출시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의 가르침을 시조로 만들어 노래하는 일본의 전통 찬불가 '고에이카(御詠歌)'를 혼자서 연습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 개발처는 일본 임제종의 대본산인 묘신지(妙心寺). 본산이 나서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특별한 소식을 '교토신문', '마이도나 뉴스' 등의 언론들이 특별 보도했다.



묘신지 측에서 공개한 고에이카 앱(스마트폰 화면)과 기존 고에이카 보조도구.
사진출처=교토신문

고에이카(御詠歌)는 중세부터 전해오는 일본의 전통 찬불가로, 한시 혹은 일본의 전통 시조로 된 가사를 요령과 징으로 박자를 맞춰가며 부르는 노래이다. 문맹률이 높았던 중세에 노래로 된 고에이카는 서민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었고, 예불을 대신해 대중이 함께 부르는 전통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고에이카는 각 종단과 본산별로 다양한 유파가 있어 종단의 중요한 행사나 법요에서 반드시 음성공양의 일환으로 불리우고 있다. 묘신지의 고에이카는 하나조노(花園)류라고 불리며 1924년경 도쿄에서 활동하던 이와타 덴마 스님 부부가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창시된 것으로 전한다.

고에이카는 지금까지 각 사찰의 주지스님, 혹은 고에이카 사범이 자신의 소속사찰에서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식으로 전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는 지도자들의 고령화와 이수희망자의 감소로, 현재 하나조노류 고에이카의 회원은 전성기의 절반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묘신지 측은 이런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고 편하게 고에이카를 즐길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2년 전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해 왔다. 묘신지 측은 "이미 기존에 사범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지만, 이번 애플리케이션은 이를 응용하여 혼자서 고에이카를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통적으로 사찰에 신도들이 모두 모여서 전수가 진행되던 기존의 교육방법이 코로나19 상황 속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시스템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엔 임제종 묘신지파에서 주로 불리는 50여 곡의 리듬과 음계를 짚어주고, 혼자 연습하기에 편하도록 반주곡이 나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고에이카 전수가 사찰과 신도 간의 결속력과 개인의 신행활동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오히려 신도들이 사찰에 올 수 있는 계기를 없애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조노류 고에이카 본부 측은 "애플리케이션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것.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금 모두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며 사범의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두 건강하고 즐겁게 노래하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까르마빠, 재난소멸 온라인 기도 봉행

온라인 '까규 몬람', 전세계 신도 함께해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지도자인 17대 까르마빠 오갠 틴레 도르제(37)가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을 소멸하기 위한 온라인 기도회를 봉행했다. 지난 1월 20일, 까르마빠 공식사무국은 공식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8일간의 기도회를 알렸다.

까규파는 원래 매년 초 성도성지인 부다가야에서 까르마빠의 주재하에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기원법회인 '까규 몬람'을 봉행해 왔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사부대중이 모이기 어려운 것에 따라 '온라인 까규 몬람'을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도회는 특별히 코로나19를 비롯해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와 인재를 소멸하기 위한 기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도의 주제 역시 '역경의 종식을 위한 대기원법회'로 정해졌다.

이번 온라인 기도회에 맞춰 까르마빠 공식사무국은 특별히 제작된 기도집을 전자책 형태로 무료 공개했다. 티베트어를 포함해 3개 국어로 제작된 기도집의 내용은 까르마빠가 직접 선택하고 편집한 것으로 전했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기도를 인도하는 17대 까르마빠 오갠 틴레 도르제.
사진출처=까르마빠 공식사무국

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된 기도는 까르마빠의 짧은 법문을 시작으로 대중들이 함께 기도문을 독송하는 방식으로 봉행됐다. 까르마빠의 법문과 기도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됐으며, 특히 페이스북 중계에는 한국어 통역이 함께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17대 까르마빠는 기도회를 시작한 첫날 "풀 한 줄기는 풀 한 다발보다 약하지만, 그렇다고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기원과 열망이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합치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 굳게 믿는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힘과 장점이 있다"며 대중이 함께 같은 목적으로 기도하는 의의를 설명했다.

또한 여러 재난으로 힘든 현재에 대하여 "지난 2020년은 전세계에 모두 힘든 한해였다. 그러나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경에 직면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외부의 물질적 지원 뿐만 아니라 인내, 용기, 희망,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역경을 새로운 길로 만들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역경에 고개를 숙일지, 혹은 직면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응원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이를 위한 모든 기도에서 "모든 기도에는 일체중생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선한 동기가 함께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경〉을 독송한 넷째 날, 까르마빠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신체적 안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 마음에 행복감이 없는 큰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사여래의 대서원과 가피의 힘으로 자타의 몸과 마음의 병을 없애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증장시켜 나가야 한다"며 모두가 힘을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또 까르마빠는 "〈약사경〉은 약과 치료법을 보여주는 글이 아니다. 그러나 약사여래께서 중생들을 치유하기 위해 크나큰 서원을 세우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서원의 힘이 마음에 미치고, 선업을 수행하려는 용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어려운 시기를 수행정진하는 기회로 만들 것을 강조했다. 온라인 까규 몬람은 27일 백산개불모와 마리지천, 사면불모(獅面佛母) 기도와 질병치유기도문으로 회향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러시아 최초 불교대학, 자생시도 관심

'타시 초코르 링' 사원, 현대교육과 전통교육의 공존

러시아에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강원체계의 승가교육이 현대고등교육의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1월 25일 온라인 불교 전문매체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러시아 최초의 불교 대학인 '타시 초코르 링(Tashi Chokhor Ling)' 불교대학을 보도했다.

'타시 초코르 링' 불교대학은 시베리아 바이칼호 동쪽에 위치한 부리야트 공화국에 소재하고 있다. 몽골계 유목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시베리아는 이미 중세에 티베트 불교가 전해졌으며, 제정 러시아 시기엔 티베트와 러시아가 외교관계를 맺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불교사원이 건립되기도 했다.

'타시 초코르 링'은 부리야트 승가의 본산인 이볼긴스키 다찬의 부속 강원으로 공산혁명 이전에 건립되었으나 소련정부의 박해로 한때 폐쇄됐고, 1970년대에 다시 종교 활동이 부활했다. 이 곳은 18세기에 시베리아 출신의 불교 지도자로는 최초로 티베트에서 전통적인 강원체계를 모두 마쳤던 캄보라마 담바 다르샤지에프 스님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타시 초코르 링' 사원은 1970년대 재건되면서 전통적인 강원체계를 복원했다. 그러나 많은 러시아 불자들의 관심과 교학적 연구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지난 1999년 러시아 정부의 인가를 받아 러시아 최초의 불교 전문대학으로 개교했다.



타시 초코르 링 불교대학 전경.
사진출처=얀덱스

현재 이곳에선 현대적인 학위체계와 전통적인 법계체계를 혼합하여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문대학답게 불교철학 뿐만 아니라 종교의례, 불교미술, 의학 등의 불교관련 학문도 교육되고 있다. 현재 '타시 초코르 링'의 목표는 현대 러시아에서 그간 단절되었던 불교와 아시아의 학문적 전통을 부활하고, 쇠퇴한 부리야트 승가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티베트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역시 이곳의 교육현황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고 있으며, 인도에 재건된 망명 티베트 불교 사원들과 교류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 대학은 몽골의 간단사원, 부랴트 주립대학 등 국내외 많은 불교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러시아 불교학의 새로운 지명을 열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베리아에서 오랫동안 끊겼던 법등이 어떻게 되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재 객원기자

美조동종, 美의회 난입에 성명 발표

폭력과 백인우월주의 강력비판

美조동종 선불교협회(이하 SZBA)는 1월 6일, 친(親)트럼프 시위대가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난입한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1월 18일 불교 전문매체 '라이언스 로어'는 SZBA의 성명서를 특별 보도했다.

1월 6일 친트럼프 시위대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의회의 인증을 무산시키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 폭력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사상자가 나오고 미국 의회가 쑥대밭이 됐다. 이에 대해 SZBA는 "이번 시위는 폭력과 백인 우월주의가 깊이 결부되어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SZBA 협회장인 소산 테레사 플린 스님은 협회 이사진과 주요 간부들이 서명한 이번 성명서를 통해 "백인우월주의는 분명 미국의 건국원리였으며, 이 국가가 운영하는 위계적 조건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종차별은 우리 사회 속 공업(共業)의 한 부분으로서 남아있다"고 성명을 시작했다.

SZBA는 시위대 중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남부연합과 나치 깃발, 복장이 보이는 모습에 대해 "우리는 이미 지난 여름 흑인 인권 시위와 시위대에 가해진 수많은 폭력과 혐오를 보았고 이것은 우리사회 미래에 차별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까지 이어졌다"며 비판했다.

SZBA측은 끝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불교는 우리에게 치유와 해방의 가능성을 알린다. 각종 차별이 관행으로 자리해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이러한 인정에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의 마음 속에 자비가 살아 있고, 진리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음을 굳게 인지하고 진정한 자유를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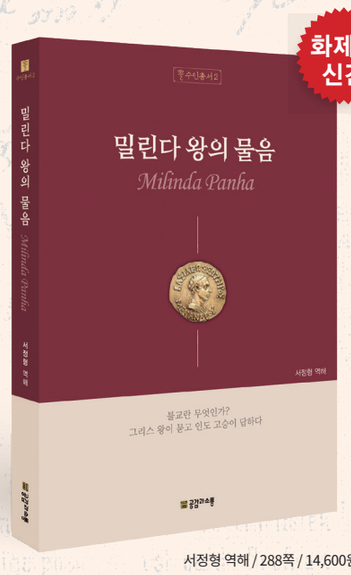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불교란 무엇인가?
그리스 왕이 묻고 인도 고승이 답하다!"



밀린다 왕의 물음

알렉산더의 후예인 그리스 왕 밀린다와
불교에 정통한 인도 고승 나가세나의 주옥 같은 대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유려한 우리말로 풀어쓴
〈밀린다팡하〉역해서!

이 책은 불교에 회의적인 서구인들이 내게 묻는 대부분의 질문들에 답하고 있다.
– 비구 페살라(Bhikhu Pesala)

〈밀린다 왕의 물음〉이 인도 산문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문학적 견지에서도 어느 나라의 어떤 책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리스 데이비즈(T. W. Rhys Davids)

서정형 역해 / 288쪽 / 14,600원

서정형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 불교와 철학개론을 강의했고,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나가세나

밀린다 왕 :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 머뭅니까?
나가세나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밀린다 왕 : 그렇다면 지혜라는 건 없군요.
나가세나 : 바람은 어디에 머뭅니까?
밀린다 왕 : 머무는 데가 없습니다.
나가세나 : 그럼 바람은 없습니까?

공감과소통 전화 031-942-9472